화두 끊임없이 챙기고 의심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마음의 청정(淸淨)한 그 자체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부처요, 마음의 청정한 광명(光明)을 임의자재(任意自在)하게 쓴다면 그것이 곧 법(法)이요, 승(僧)이니라. 마음을 깨달으면 진리가 그 가운데 다 있으니, 삼보(三寶)가 하나이고, 하나가 삼보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팔만 사천 진리가 사람 사람의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결제에 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가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到來)하였도다. 지난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감이라. 중생의 일생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니 의식이 있는 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됨이라. 화두를 타파한 진리의 세계에는 무시무처(無時無處)라, 즉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으니 일념(一念)이 무량겁(無量劫)이고 무량겁이 일념이라.

〈중략〉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체처일체시(一體處一體時)에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야 할 것이라.

중국의 당나라시대에 조주(趙州)선사께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오대산을 향해 행각(行脚)에 오르셨다. 오대산(五臺山)은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상주(常住)하고 계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이라. 수백 리 길을 가다가 하룻밤 머물고자 어느 암자에 들르시니, 그 암자에 계시던 백발 노승(老僧)이 물었다.

"젊은 스님은 어디로 가는고?"

"오대산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말 끝에 노승이 게송을 읊기를,

何處靑山非道場(하처청산비도량)
何須策杖禮淸凉(하수책장예청량)
雲中縱有金毛現(운중종유금모현)
正眼觀時非吉祥(정안관시비길상)

어느 곳 청산(靑山)과 도량(道場) 아닌 곳이 없거늘 하필 책장(策杖)을 짚고 청량산(淸凉山)까지 예(禮)하러 가려는가. 가사 구름 가운데 금빛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나타난다 해도 바른 눈으로 보건대 길상(吉祥)한 것이 못되느니라.

하고, 조주 선사를 경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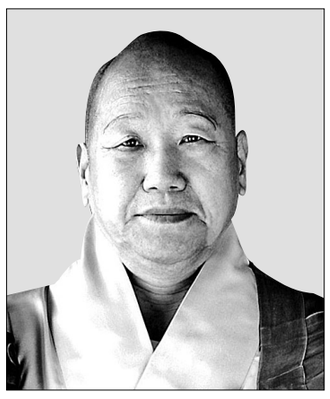
노승의 게송을 다 듣고 난 조주 선사께서 "어떤 것이 바른 눈[正眼]입니까?" 하고 물으시니, 노승은 그만 말이 막혀버렸다.

조주 선사께서 노승의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다시 오대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가는 도중에 또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물었다.

"그대는 어느 곳을 향해 그렇게 가는고?"

"오대산 오백 나한승(五百羅漢僧)에게 예배하러 갑니다."

"어젯밤 오백 나한이 다 물빛 암소가 되어 갔다."



이 말 끝에 조주 선사께서 "아이고, 아이고!" 곡(哭)을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천추만대(千秋萬代)에 귀감이 되는 진법문(眞法門)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법문에 확연명백(確然明白)한 법안(法眼)이 열려야만 비로소 사람 도리를 할 수가 있는 법이로다.

이와 같은 삼매(三昧)를 드러내 보인 법문이 또 있음이라.

남전(南泉) 선사께서 천태산(天台山)의 한산(寒山), 습득(拾得)께 예배드리러 와서 며칠 머물다가 하직 인사를 올리자, 한산께서 물으셨다.

"어디를 가려 하시오?"

"마을 아래 돌다리에 놀러 가고자 합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하시려오?"

"가서 오백 나한승에게 예(禮)를 올리려 합니다."

그러자 한산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오백 나한이 다 물빛 암소가 되어 가버렸소." 하시는 것이었다.

여기에 모인 시회대중들은 이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소승과(小乘果)를 증득(證得)한 신통자재(神通自在)한 나한승들이 물빛 암소가 되어 가버렸다고 하니, 그 말에 남전 선사께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시니, 한산께서 "비록 몸은 뒤에 받았지만 큰 종사(宗師)의 눈을 갖추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남전 선사께서는 "허허!"라고 허허성(噓噓聲)을 하시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음이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화두를 타파(打破)하여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게 되면, 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며, 또 왜 "허허성"을 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됨이로다. 그렇게 되면 조주, 남전 선사를 바로 알고, 한산, 습득의 살림살이를 다 알아서 그 분들과 척척 상통(相通)하게 되리라.

그러면 남전 선사께서 "허허!" 하시는 데는 한산, 습득 두 분 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산승(山僧)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들, 손뼉을 치면서 "하하!"라고 한바탕 큰 웃음을 치리라.

여기에도 또한 큰 뜻이 있음이로다. 손뼉을 치면서 "하하!"라고 웃는 이 뜻을 안다면 모든 부처님의 은혜와 사사공양(四事供養), 시주(施主)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으리라. 필경에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衝落碧開松千尺(충락벽개송천척)
截斷紅塵水一溪(절단홍진수일계)

푸른 하늘을 찔러 여는 것은 천 길 푸른 소나무요, 세간의 먼지를 끊어내는 것은 흐르는 물이더라.

매순간 三毒心 경계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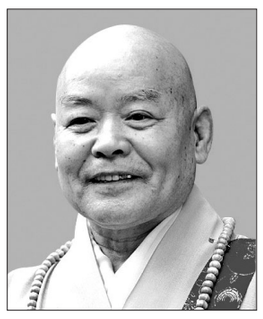
그 어느 해보다 급변하는 격동의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어느덧 동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화엄경〉에 일념은 무상찰나(無常刹那)이고, 일찰나 순간에 한량없는 세월을 꿰뚫어 보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깨달음의 근본본체가 무엇인가?

불교의 유심론에서는 인간의 근본의식을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하고,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인류문명의 주도적 견인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지요.

해동성자(海東聖者)라고 불리는 원효는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무명(無明)의 연으로 최초 마음이 일어나고[無明業相], 그 동요한 마음이 자신을 찾아 바라보려고 하는 인식작용 모습[能見相]과 그리고 인식작용 때문에 경계로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境界相]의 세 가지 무명인(無明因)의 근본번뇌를 현식(現識)인 아뢰야식과 연결하여 해설하였는데, 이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비로소 무의식의 변화현상인 번뇌를 끊을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며, 이 무의식은 일반적으로 각성(覺醒)되지 않은 심적 상태로 순수한 본래마음 또는 지혜의 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과성(非因果性), 무논리적인 다양한 본능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번뇌망상의 원인인자(原因因子)이며, 그 결과로 선업과 악업의 종자가 저장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아뢰야식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략〉

끝으로 납자 여러분은 해제법회를 마치면 만행에 나설 것인데, 선 수행은 일상에 항상 마주하고 있는데, 주유천하(周遊天下) 도중에 한 순간이라도 삼독심(三毒心)에 대한 경계(警戒)를 소홀히 하면, 곧 탁류(濁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항상 명심합니다. 따라서 수행의 끈을 잠시도 놓치지 말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어 진광불휘(眞光不輝)할 것을 당부합니다.

불조 혜명 이어 무량중생 제도하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曠劫明明無二相(광겁명명무이상)
淸閑一味最端然(청한일미최단연)
元來不被微塵轉(원래불피미진전)
兀兀騰騰劫外玄(올올등등겁외현)

오랜 세월 밝고 밝아 다른 모양 없으니, 맑고 고요한 한 맛 가장 단연하여라. 원래 티끌에 흔들림 없어서, 올올하고 등등하여 겁밖에 오묘하더라.

〈중략〉

오늘이 벌써 동안거 해제일(解制日)입니다.

진정한 해제라 하면 이 공부를 마쳐야 해제한다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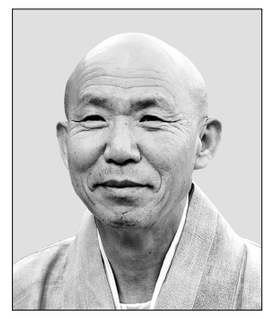
이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면 해제했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정진하는 것은 명리와 의식주와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를 해결하여 불조의 혜명(慧命)을 잇고 무량중생(無量衆生)을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제와 결제를 구분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같이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진을 애써 한다면 득력하고 공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玉兎昇沈催老像(옥토승침최노상)
金烏出沒促年光(금오출몰촉년광)
求名求利如朝露(구명구리여조로)
或苦或榮似夕烟(혹고혹영사석연)
勸汝慇懃修善道(권여은근수선도)
速成佛果濟迷倫(속성불과제미륜)



今生若不從斯語(금생약부종사어)
後世當然恨萬端(후세당연한만단)

달이 뜨고 지는 것은 늙음을 재촉하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세월을 재촉함이로다.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은 아침 이슬 같고 혹은 괴롭고 혹은 영화스러운 것은 저녁 연기와 같음이로다.

그대에게 간절히 도 닦기를 권하노니, 빨리 불과를 이루어 중생을 건질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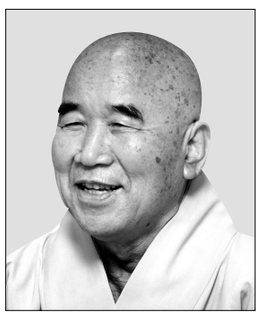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한이 만 갈래나 되리라.

굳은 원력은 보리수요, 인욕은 방석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一株無影樹(일주무영수)
移就火中栽(이취화중재)
不假三春雨(불가삼춘우)
紅花爛漫開(홍화난만개)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속에 옮겨다 심어놓았네. 삼춘의 봄비를 빌리지 않아도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벗어난 겁외의 꽃을 피운 사람만이 두 팔을 휘저으며 산문을 나서는 날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한 철을 기약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계산해 득과 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가 삭발하고 염의를 입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삭발은 머리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인 욕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염의는 남이 쓰다 버린 천 조각을 기워서 만든 옷입니다. 비록 쓰다버린 더러운 천으로 만든 옷을 걸쳤지만 결코 마음은 세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는 사부대중이 다 모였습니다. 질긴 욕망의 머리를 자르고 세상의 온갖 시비에 물들지 않는 용맹심과 믿음이 갖추어졌습니까?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이게 하는 것도 욕망이요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중생의 욕망이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은 또다시 욕망이라는 자식을 낳아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게 합니다. 〈중략〉

성성한 화두의 칼로 불꽃처럼 치솟는 욕망을 끊어낸다면 그는 욕망의 불길 속에서 겁외꽃을 피워내는 참 수행자입니다. 번잡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여여 하다면 비록 염의를 입지 않았어도 출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과 출가는 겉모습에 있지 않고 올바른 통찰과 정신에 있습니다.

스스로 들어선 길에 그 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아래에서 해제를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굳은 원력이 보리수요 인욕이 방석입니다. 오늘 그 보리수에서 그 방석에서 떨치고 일어설 자신이 있다면 산문을 나서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결제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략〉

白雲兒向萬里飄(백운아향만리표)
從來不忘靑山父(종래불망청산부)
乃何遊子不知反(내하유자부지반)
累他慈父送人尋(누타자부송인심)

백운은 바람 따라 만리 허공을 표류하지만 여태까지 청산의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다네. 그런데 어찌해 집 떠난 자식은 돌아올 줄 모르고 자부가 누누이 사람을 보내 찾으며 애타게 하는가!

용맹심 더해 활구 참구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出格丈夫意 縱橫(출격장부의 종횡)하니 任運自在 快活人(임운자배 쾌활인)이로다. 黃金白玉未爲貴(황금백옥미위기)요. 識心見性是爲貴(식심견성시위귀)로다.

격식에 뛰어난 장부의 뜻은 자유로우니 뜻대로 걸림없는 쾌활한 사람이로다. 황금백옥이 귀함이 되지 못하고 마음을 알아 견성함이 이것이 귀함이 됨이로다.

오늘은 정월 십오일이라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못물에 비치는데 수중월이라 해야 옳은가? 달그림자라 해야 옳은가? 만약 수중월이라할진댄 경계에 떨어진 사람이요, 달그림자라할진댄 물을 저버린 사람이 될 것이다. 경계와 물에 구애치 말고 대중은 한마디 일러라!

良久(양구) 에 "一喝(일할)" 云(운)

若道不得(약도부득)인댄 云何解制(운하해제)리요 卽非他事(즉비타사)라 分明自己事(분명자기사)어늘 何敢放逸(하감방일)하야 各分東西(각분동서)하며 之南之北(지남지북)가 更可勇猛(갱가용맹)하야 珎祥活句(참상활구) 하고 直了大事(직요대사)어다.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하고 이르시되

만약 이르지 못할진댄 이를 어찌 해제라 하리요 곧 다른 이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일이거늘 어찌 감히 방일해서 각각 동서로 나누며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겠는가? 다시 용맹심을 더해서 활구를 참구하고 바로 일대사를 마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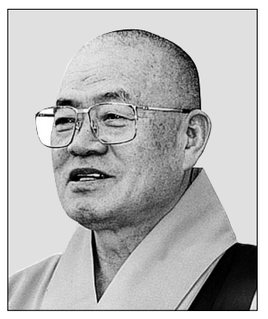
頌曰(송왈) 게송으로 이르시되

一拳打倒 須彌山(일권타도 수미산)하고 建立心王 法王宮(건립심왕 법왕궁)이로다. 平正六國安溫界(평정육국안온계)에 普供十方諸刹海(보공시방제찰해)로다.

한주먹으로 수미산을 쳐서 꺼꾸러트리고 자기마음부처의 법왕궁을 건립할지로다. 육근의 여섯 도적을 황복받아 평정함에 널리 시방의 모든 찰해에 공양할지로다.

一念頓亡生死心(일념돈망생사심)하면 息心當處卽菩提(식심당처즉보리)로다.

한 생각에 몰록 생사심만 쉬어버리면 한 생각 쉰 당처가 곧 정각이로다.



자성 증득만이 진정한 해탈이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선(禪)은 깨달음의 역사다. 깨달음 역사는 참 교육의 역사요 참 교육의 역사라는 것은 참 생명의 등불을 전해주는 전등(傳燈)의 역사다. 전등의 역사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보광삼매에 드시어 문자와 언어가 아닌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마가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하셨다. 그것은 무아(無我)요 자타일여(自他一如)의 세계다. 우주와 자아가 혼연일체(渾然一切)가 된 경지며, 그것은 자유자재의 세계다. 무애(無碍)요 원융(圓融)의 세계며 그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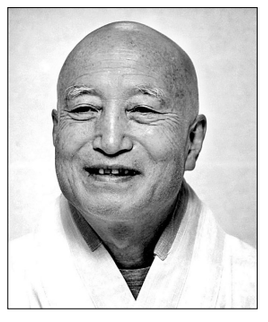
조용(照用)을 동시(同時)로 하되 역순(逆順)에 걸림 없고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으며 시방세계에 올올(兀兀)히 자재하고 청정하며 당당하고 활발발하기가 짝 할 자가 없더라.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본래로 보제(菩提)의 세계요 항하사(恒河沙)와 같은 세계가 그대로 청정한 적멸도장(寂滅道場)이더라.

이것이 영원토록 자재하며 영원토록 고요하고 밝으며 영원토록 신령스러우며 영원토록 원만히 통하고 광대하더라.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으며, 거래(去來)도 없어서 어떠한 명상(名相)과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더라.

이것을 부처님과 역대조사와 역대 선지식이 깨달아 성취하시고 중생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도 노심초사 애쓰신 것이더라.

이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 아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이 도리를 깨달아 영원토록 자유스러워야 되고 무위자성진실락(無爲自性眞實樂)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향유해야 하는 것이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념 · 사상 또는 철학 그리고 종교까지도 그것은 인간을 위한 방편이지 구경(究竟)은 아니다. 청정한 자성 자리를 증득했을 때만이 진정한 해탈이다. 모든 명상은 다 떨어지고 능(能)과 소(所)도 잊어버리고 주(主)와 객(客)이 끊어진 자리가 영원한 무주(無住)요 무애요 무상(無相)이다. 진정한 무위진락(無爲眞樂)의 세계요 우리 모두 가야할 구경이다.



靈光獨照脫根塵(영광독조탈근진)
坐臥經行現妙眞(좌와경행현묘진)
有時不覺 身轉(유시부각번신전)
山河大地獅子吼(산하대지사자후)

〈하략〉